

12일 Market Index			
↑ 코스피	4624.79	↑ 코스닥	949.81
	(+38.47)		(+1.89)
↑ 금리 (연고채 3년)	2.970	↑ 환율 (원/달러)	1468.50
	(+0.028)		(+10.90)

metro® 경제

4대은행
포용금융 확대
저신용자 '금리 인하'
03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美서 자율주행·로봇 힘주는 현대차... 글로벌 리더십 공고화

조지아주에 'RMAC' 연내 구축
HMGMA에 로봇 아틀라스 도입
연내 아이오닉 5 로봇택시 상용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대차그룹의 모셔널 로봇택시를 시승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율주행과 전기차,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격전지인 미국에서 기술 고도화에 나서며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로봇·자율주행·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에 대해 미국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연내 미국에 로봇 데이터 수집 및 최적화를 위한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 센터'(RMAC)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해 연 3만대 규모의 로봇 공장 신설을 발표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미 조지아주 사바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인근에 들어선다. 자동화·AI·로봇을 기반으로 제조 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는 HMGMA가 첨단 스마트팩토리인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SDF)'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우선 현대차그룹은 CES2026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를 미국 현지서 생산해 HMGMA에 도입할 방침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팟을 HMGMA에 투입하고 공장 내 위험구역 점검, 데이터 수집 등 생산 공정 최적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로봇뿐 아니라 SDV 핵심 기능인 자율주행 사업도 미 합작법인 모셔널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모셔널은 연내 라스베이거스에서 아이오닉 5 로봇택시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에서 미래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환경도 꼽힌다. 엔비디아, 퀄컴, 구글 등 주요 협력 관계인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도 미국에 위치해 있어 기술 협업과 의

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도 있지만 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와 강성 노조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이다.

미국은 자율주행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 도입과 절차를 간소화해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 기술 확보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술 수용성, 빅테크 집결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국내는 안전요원 탑승과 비상시 수동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레벨3 자율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운행 가

능하고 사고시 자율주행 정보 기록 장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와의 갈등 문제도 있다. 기아 노조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논의에서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AI 위원회' 구성을 사측에 요구한 바 있다. 또 주 4일제를 요구하는 등 노사간 갈등도 부담이다.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올해 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인 로봇택시' 상용 서비스를 본격 개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의 포티투닷은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R&D 센터를 개소하는 글로벌 거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마운틴뷰는 실리콘밸리 중심 지역으로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본산지다. 자율주행 업체 웨이모와 오로라이노베이션 등 자율주행 관련 기술 기업들도 많아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은 물론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시범 운영하는데 최적화됐다"며 "기술 고도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2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차고지 모습. /뉴스1

"개인정보 유출 쿠팡 영업중지 처분 가능"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

주경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중지 처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에 출연해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영업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피해를 쿠팡이 구제할 수 있는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피해구제 이행 여부가 제재 수위 판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쿠팡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조사도 다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쿠팡과 관련해 다양한 사건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와우멤버십 할인과 관련한 기만 광고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빠른 배송이 가능한 와우멤버십 회원에게 할인 가격을 적용하는데 그것과 관련해 할인 가격에 대한 기만 광고 행위도 있다"며 "할인 가격이 한 번만 적용되는 것인데 계속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회원 탈퇴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회원 탈퇴 과정이 너무 복잡해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회원들은 탈퇴를 못 하거나 탈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김 의장과 김 의장 일가가 경영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김 의장의 친족이 경영 참여할 경우에는 동일인 지정은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반도체 '슈퍼사이클' 코스피 4600 돌파... 빛투 역대최대

KRX, 코스피 지수 7연속 사상최대 동학개미, 올해 누적 1조 매수세 증권가, 코스피 예상치 일제 상향



코스피가 전 거래일(4586.32)보다 38.47포인트(0.84%) 오른 4624.79에 마감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스1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 기대로 코스피가 4600선(중가 기준)을 뚫었다. 뒤쳐지면 안 된다는 '포도'(FOMO) 심리가 커지며 이른바 '빛투'(빛내서 투자) 규모도 최대로 불어났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4% 오른 4624.79에 마감했다. 올해 들어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코스피 5000선까지는 어느새 약 8.11%만 남았다.

기관과 동학개미가 각각 2000억원, 8000억원어치를 사들이며(순매수)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개미들의 올해 누적 매수액은 1조원대로 불어났다. 개인들의 매수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다. 올해 누적순매수액은 각각 3조9600억원, 4500억원 규모다.

이날도 반도체가 증시를 주도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는 장 중 '14만 전자'를 찍었다. SK하이닉스도 '76만 니스'를 달성했다. 종가는 각각 13만 8800원, 74만 9000원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이들 반도체주의 추가 상승을 전망한다. 장밋빛 실적전망 때문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올해 1분기 22조 8178억원, 2분기 26조 3923억원 등이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액은 106조 7034억원이다. SK하이닉스 역시 고

대역폭메모리(HBM3E) 공급 확대에 힘입어 올해 HBM 시장 점유율 50% 안팎을 유지하며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렐리는 자동차주로도 확산했다. 현대차는 0.27% 오르며 36만 7000원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쇼(CES) 2026'에서 인공지능(AI) 로봇택시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지난 6일(현지시간)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젠스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비공개로 회동했다는 소

식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한다.

AI발 기대감에 두산에너지는 4.63% 상승했다.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예상치를 올려 잡기 시작했다. 대신증권은 이날 "1분기 중 코스피가 5000대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4600에서 5650으로 상향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기업들의 이익이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을 반영했다. 유안타증권도 기존 3800~4600의 전망치를 4200~5200으로 높였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맹렬하게 달리면서,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에 나서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국내 증시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28조 349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갖지 않은 금액으로, '빛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메트로 한줄뉴스



▲박지원 "국힘, 이대로면 몰락...구원투수는 간동훈 아닌 홍준표" /사진 뉴스1
▲조국 "이준석,故노회찬 발언 왜곡 말아야"...국힘과 손잡는 연대 거부

▲김병기, 당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 자진 탈당 의사 질문엔 침묵
▲검찰개혁추진단, "검찰총장 헌법에 규정...명칭 그대로 유지"

▲국힘 "1인당 GDP 3년 만에 뒷걸음질... '경제 체질' 개선만이 살길"
▲국힘 송언석, "2차 특검에 국민 피로"...민주당 한병도, "내란 청산해야"